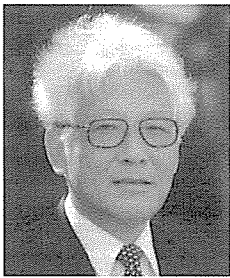


# 어느 주술사(呪術師)의 변신

미국에서 한때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자연요법」이란 책을 쓴 앤드루 웨일이 세계 각지의 민간요법을 조사하기 위해 아마존 오지의 주술사(呪術師)를 찾았다. 그러나 추장과 의사의 일까지 맡고 있던 이 주술사는 개발에 밀려 훼손되고 있는 아마존의 열대림과 생활터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운동가로 변신해 있었다. 자연이 파괴되는 이 무서운 현실 앞에서 우리도 아마존의 주술사처럼 변신과 전업을 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柳宗鎬  
(연세대 국문과 교수)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의 하나가 건강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고소득사회의 베스트 셀러에는 으레 건강에 관한 책이 끼어있게 마련이다. 앤드루 웨일의 「자연요법」이란 책은 미국에서 베스트 셀러가 되어 굉장히 많이 읽힌 책이다.

사람은 누구나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질병의 침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가지고 있느니만큼 이 면역능력을 강화해 주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통상적인 치료법과

이른바 대체의학 요법의 종합을 지향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들고 있고 심신의 상관관계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사람 손에 자연은 죽어가고...

앤드루 웨일에 의하면 의사를 뜻하는 '닥터'는 가르친다는 뜻의 라틴말에서 나왔다. 따라서 질병의 예방을 가르치는 것이 의사의 일차적 소임이며 일단 걸린 질병의 치료는 이차적인 소임이란 것이 그의 신조이다.

따라서 치료 위주의 의료 실천에 회의적이었다. 그는 세계 각국의 민간요법이나 약초 활용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젊을 적엔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국경의 아마존 오지까지 찾아나선 적이 있었다. 코판이란 인디안 부족의 주술사(呪術師)를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원시부족 사이에서는 왕왕 추장과 주술사와 의사가 동일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페드로란 이름의 그는 신비스러운 전통적 비방의 소유자로서 소문난 인물이었다. 원주민 사이에서 소문난 주인공을 찾아보면 대개 실망하게 마련이어서 페드로는 그가 기대를 건 마지막 주술사였다. 어려운 고비를 몇번이나 넘기고 가까스로 주술사가 살고 있는 오지의 오두막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는 부재중이었고 며칠을 기다려서야 돌아온 그를 만나 보았으나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았다.

마침 텍사코(Texaco)회사가 석유탐사를 시작해서 주변의 열대우림(熱帶雨林)이 마구 훼손되고 있었고 하천 오염이 극심하였다. 텍사코회사의 헬리콥터 소리가 짐승들을 열대림에서 내쫓고 물고기가 하천에서 사라져 가고 사냥과 고기잡이가 이루어지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원주민들은 생활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었고 현지 정부나 외국자본은 원주민의 곤경에 대해선 전혀 무관심하였다. 페드로는 부족 전통의 주술사 겸 치료사의 소임을 팽개쳐 버리고 사회운동가가 되어서 열대림과 생활터전 보호를 위해 코판족을 조직하고 진정서의 서명을 받는데 온 정력을 다 쏟고 있었다. 그것은 1972년의 일이었다.

앤드루 웨일은 그후 라틴아메리카의 오지를 찾아다니며 계속 민간요법의 실재를 연구하다가 자기 문화 속에서 자연요법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것을 일반인에게 알린 것이 위에 적은 「자연요법」이란 책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

은 것은 그의 자가치료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책 첫머리에 적은 그의 경험담은 저자의 당장의 의도와 관계 없이 매우 상징적인 삽화인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삶의 터전이 되어 왔던 풍요한 자연이 손상과 소멸에 직면하고 따라서 한 부족, 나아가 인류의 존망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사람의 생명을 몇해 연장시키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주술사의 심정일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자기를 찾아온 사람은 헬리콥터와 불도저를 앞세우고 밀어닥친 자연 적대적인 텍사코회사와 동류의 이방인이 아닌가? 설혹 비방(秘方)이 있더라도 알려주고 싶은 심정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비법을 알려준다는 것은 결국 생활 터전과 열대림 파괴자에게 힘을 보태주는 일이 아닌가?

원주민의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반어적(反語的)이다. 단기적인 시점에서 보면 한 부족의 명운에 관련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전지구적인 재앙으로 이어지는 일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몇몇 사람의 생명을 늘려주는 일은 하찮은 짓거리로 보여지기조차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대지 자체가 결판나고 있는데 거기 기생하는 사람의 질병이 무슨 대수일 것인가?

대지의 파멸과 더불어 인류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마당에 도대체 비방(秘方)은 무엇을 위한 비방이란 말인가? 불보듯이 뻔한 이치를 보지 못하고 한치 앞만 내다보고 바둥거리는 오늘의 인류의 난경(難境)이 고스란

히 드러나있는 삽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앞으로 25년 안에 세계의 성숙한 열대림은 거의 모두가 벌채된다고 한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급속히 확산·진행되고 있는 사막화(沙漠化)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 머지 않아 대륙 전체를 사막화하고 말리라고도 한다. 환경학자들이 보고하는 비판론적 통계수치는 우리를 압담하게 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도 어려운 처지인데 무슨 잠꼬대냐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선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가오는 재앙이 발걸음을 멈추거나 늦추지는 않는다. 미구에 우리 모두에게 어둠의 그늘을 드리우고 말 것이다.

### 신은 망하고 인간만 남아...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처지에 합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환경보호를 위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몇몇 환경단체나 개인들의 노력에 맡겨두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물론 오래 전부터 자연훼손과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산발적으로 꾸준히 들려왔다. 가령 한 젊은 시인이 다음과 같이 적었을 때 그것은 고립된 목소리가 아니요 소리 없는 다수의 집약된 마음 속 절규이기도 하다.

신(神)은 시골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회를 건설했다.

신은 망했다.

—— 이갑수, '신은 망했다', 전문

신은 망했다. 그러면 흥하는 것은 누구인가? 인간이다. 그렇지만 착하고 인정많은 인간이 아니다. 시인 최승호는 '서울에는 낯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무서운 자식들도 한둘 아니다./까치야, 죽은 까치야' 하고 노래하고 있다. 신이 망한 자리에서 흥청망청하는 것은 시인이 말한 '무서운 자식들'이다.

이들이 까치를 죽이고 비둘기를 죽이고 강물 속 물고기의 씨를 말리고 있다.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며 목숨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강물 속 물고기의 씨를 말리고 있다.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며 목숨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홀대하고 있다.

즉 우리 모두가 이러저러한 구실로 '무서운 자식들'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을 망쳐놓고 어떻게 인간이 무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결과는 그야말로 불보듯 뻔한 것이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태평하게 있을 때는 이미 지났다.

우리의 신문과 TV는 매일처럼 건강문제를 천하 대사인양 거론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죽어가는 대지와 하천에 대한 관심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그야말로 새발의 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저나름의 선 자리에서 아마존 오지의 주술사처럼 한정된 범위의 변신과 전업(轉業)을 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 옛 영화의 제목처럼 내일이면 늦을 것이다. ⑤7